

몸과 관련된 관용 표현



관용 표현에는 눈, 코, 입, 손, 발 등 우리 몸과 관련된 것이 많아. 아마도 우리가 몸의 각 부분을 통해 세상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용 표현이 많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그럼, 몸과 관련된 관용 표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적절한 상황에 알맞은 관용 표현을 사용해 보자.

① 머리

- 머리가 잘 돌아가다 :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잘 생각해 내다.
- 머리를 맞대다 :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서로 마주 대하다.
- 머리를 짜내다 : 몹시 애를 써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내다.



② 눈

- 눈 깜짝할 사이 : 매우 짧은 순간.
- 눈에 밟히다 : 잊혀지지 않고 자꾸 눈에 떠오른다.
-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 몹시 애타게 오랫동안 기다리다.



③ 귀

- 귀가 솔깃하다 : 어떤 말이 그럴듯하게 여겨져 마음이 쏠리다.
- 귀를 기울이다 : 남의 이야기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모으다.

- 귀에 못이 박히다 : 같은 말을 여러 번 듣다.



④ 코

- 코가 빠지다 : 걱정에 싸여 맥이 빠지다.
- 코 묻은 돈 : 코흘리개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돈.
- 콧대를 꺾다 : 상대방의 자만심이나 자존심을 꺾어 기를 죽이다.



⑤ 입

- 입을 맞추다 : 미리 짜고 말의 내용을 맞추어 두다.
- 입이 무겁다 : 말수가 적거나 아는 얘기를 함부로 옮기지 않다.
- 입이 짧다 :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



⑥ 얼굴

- 얼굴이 두껍다 : 부끄러움을 모른다.
- 얼굴이 뜨겁다 : 부끄럽거나 창피하여 남을 대하기 어렵다.
- 얼굴이 반쪽이 되다 : 병이나 고통 따위로 얼굴이 몹시 마르고 야위게 되다.



⑦ 목

- 목에 힘을 주다 : 거드름을 피우거나 남을 깔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
- 목을 축이다 : 목이 말라 물 따위를 마시다.
-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 몹시 애타게 오랫동안 기다리다.



⑧ 손

- 손에 땀을 쥐다 : 아슬아슬하여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 손이 맵다 : 손으로 슬쩍 때려도 몹시 아프다.
- 손이 크다 : 썸썸이가 후하고 크다.



⑨ 발

- 발을 끊다 : 오가지 않거나 관계를 끊다.
- 발이 넓다 : 아는 사람이 많다.
- 발이 묶이다 :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활동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다.



⑩ 가슴

- 가슴에 멍이 들다 : 마음속에 쓰라린 고통과 모진 슬픔이 지울 수 없이 맺히다.
- 가슴에 새기다 : 잊지 않게 단단히 기억하다.
- 가슴이 뜨끔하다 : 깜짝 놀라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다.



출처



초등국어 개념사전 2010. 3. 25. 책보러가기

<초등 개념사전> 시리즈 『초등국어 개념사전』. 이 시리즈는 초등학교 전학년 교과과정을 모두 담은 개념의 맥을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학습 개념 사전입니다. 기존의 가나다순 사전과 달리 영역별로...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네이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